

고궁(古宮)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다

서울의 사대문 안에는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운현궁, 덕수궁 등 여러 고궁이 있다. 지금이야 큰 차도를 중심으로 구획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이지만,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사대문 안 공간 구획의 핵심은 왕과 왕의 가솔들이 거주하는 궁이었다. 주요 도로들은 궁과 궁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조선 시대에 사대문 안, 즉 도성(都城)은 왕이 사는 동네를 뜻하는 경계 표지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궁(古宮)’은 ‘옛날 궁’이라는 말이다.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나 러시아와 달리 한국의 경우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궁이 곧 ‘고궁’이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가장 큰 궁인 경복궁도 현재의 정치적 리더가 살거나 집무를 보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물은 도심의 광활한 구역을 점유함으로써 확실한 공간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금 여기’의 사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설이다. 서울의 한가운데,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해 있지만 고궁은 현재의 부동산 감각이 침입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소도(蘇塗)’로 신성화되어 있다. 예전의 것을 무차별적으로 침식하고 순식간에 잡아먹는 현재라는 시간의 폭력성이 현대성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수긍하는가. 그렇다면 고궁은 국가 제도의 힘을 빌리기는 했지만 과거 시간성의 권위를 통해 현재에 강력한 담장을 친 현대성의 예외적 공간으로서 도시에 특별한 섬처럼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물의 ‘과거’는 다른 사물의 과거와 매우 다르다. 거주자는 사라졌지만 집단의 기억을 통해 ‘전통’과 ‘역사’라는 아우라를 두름으로써 범접하지 못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성은 과거 한 사회의 절대적인 정치 권위때문만이 아니라 궁을 구성하는 고색창연한 기와와 단청, 단아한 뜰과 기품 있는 공간 배치를 바라보는 현대 도시인들의 아련한 향수때문에도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궁을 한 민족의 자긍심과 관련된 사물로 승화시킴으로써 그것을 한 역사공동체의 공동 소유물로 받아들이게 한다.

문제는 고궁이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향수와 고색창연한 이미지들이 ‘궁은 본래 무엇이었나’하는 질문을 휘발시킨다는 데 있다. ‘고궁’이 된 이 사물은 과거의 진정한 역사성을 왜곡시키는 교묘한 메커니즘을 갖는다. 한 역사공동체에 있어 이 사물은 절대왕좌의 거주지, 구중심처(九重深處)로서 과거에는 공동체의 공유 공간이 아니었다. 이 사물이 만인의 공유 공간이 된 것은 현대적 시간의 도래에 의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사물은 신성불가침인 과거의 담장을 통해 현재라는 강력한 시간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지만, 이 과거는 현재를 사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의 참된 역사성을 묻게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현대 도시인들의 무의식에서 이 사물은 이제 ‘과거’라는 외형을 띤 ‘공원’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늘날 고궁에서 도시인들이 느끼는 ‘과거’의 향수는 역사적 의미에서도 일탈해 있으며, 그 외형만이 향유된다는 점에서 키치적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E. H 카(E. H. Carr)의 유명한 명제를 상기한다면, 역사적 유물의 외관을 두르고 있는 이 사물은 실은 더 이상 ‘역사적’이지 않다.

궁이 가진 진정한 역사성-정치성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것은 식민지 지배

자들이었다. 망한 나라의 궁을 허무는 데 그치지 않고 굳이 그 자리에 짐승의 우리를 들여 놓는 한편 총독부같은 식민지배의 아성을 세웠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짐승의 우리로 바뀐 동물원(창경원)은 개장 직후부터 한밤의 벚꽃 놀이를 즐기는 이 나라 백성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이 사물의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고궁은 과거의 사물이지만, 예전에 그 사물이 공동체 전체의 삶과 관련지어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따져 묻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인 차원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고궁의 역사를 복고적으로 신비화·낭만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궁은 표면적으로만 신성한 과거의 아우라를 두른 공간일 뿐 현대 도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휴식처, 점잖은 놀이공원 외의 별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사학자 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가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을 묻는 끊임없는 대화 및 성찰의 과정이라면, 고궁은 ‘지금 여기’의 현대적-현재적 사물이어야 할 것이다.